

'한국의 울분' 연구

그 처음과 시작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보노연 세미나

2019년 8월 23일

정여진 선생님 의 의뢰

- 울분 개념과 울분 연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울분에 대해 1시간 이내 설명
- 이후에 제가 20분 정도로 왜 울분에 주목하는지에 대해 언급
- 나머지 30분 안팎 질의 응답이나 의견 교환

The image features a large, dark, textured shape on the left side, resembling a splash or a piece of dark material. The shape is irregular and has a grainy, almost crystalline texture. It is set against a white background that is peppered with numerous small, dark, circular specks of varying sizes, some of which are clustered around the dark shape. The overall composition is minimalist and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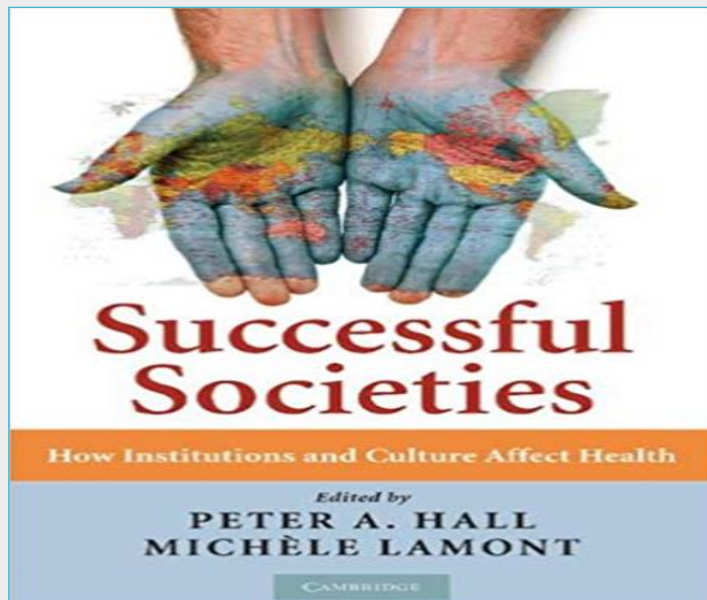
배경

왜 울분 연구를 시작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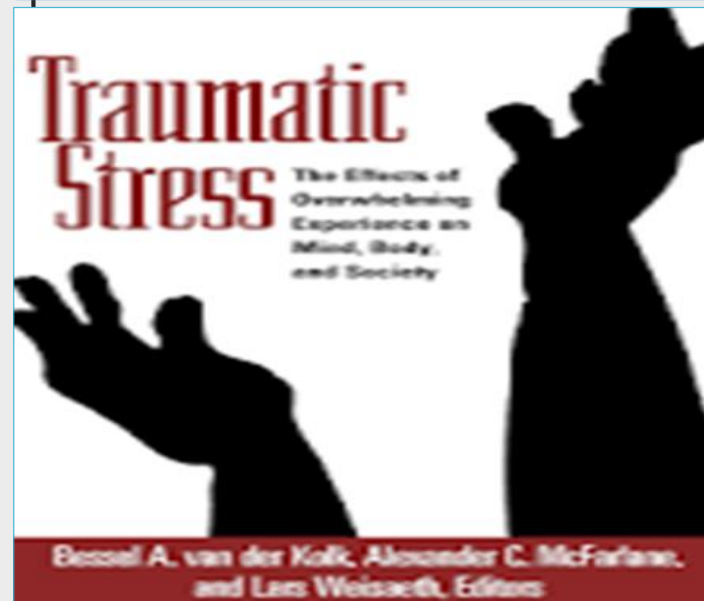
- 2008년: 보건학 박사
- 2010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임 (보건조직과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실 담당)
- 2012~2019 현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행복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소 겸무(사회의 질, 유로존 위기, 거버넌스)
- 2015~2017년: 사회의 질 및 사회정신건강 연구 참여 (사회-건강-행복 triad schemata, 특히, Hall & Lamont 이 이끄는 CIFAR 의 Successful Societies: How Institutions and Culture Affect Health 프로젝트에 관심)
- 사회적 웰빙 연구 중 '울분' 주목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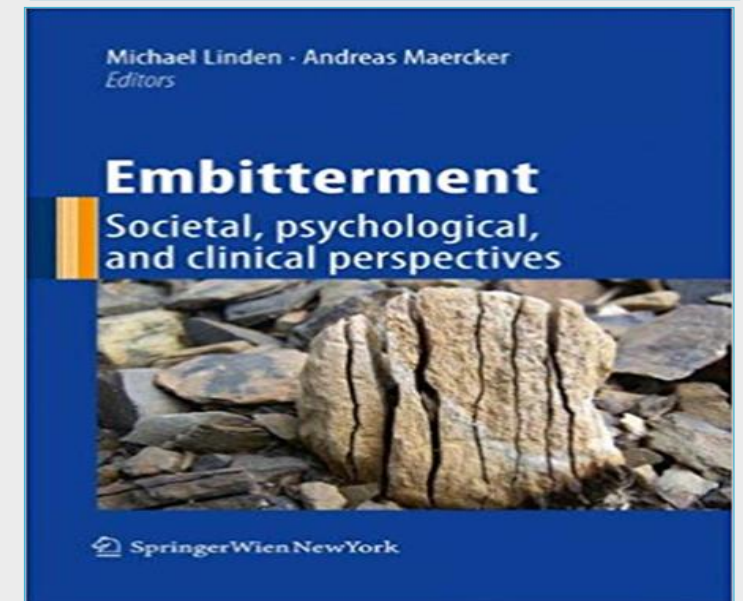
1. Successful Societies



2. Health & Social Well-being



3. Embitterment



성공 사회

- 인구집단의 건강은 특정 부문이 아니라 사회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
- 건강격차를 설명하는 사회적 결정요인 외 일상 마모 (*wear and tear in daily lives* 磨耗)에 주목할 것을 강조
- 사회적 관계 내부의 경험들과 이것이 생산하고 수반하는 의미들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 불공정, 차별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행태적 반응
 - 타인과 타 집단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나와 우리가 내린 선택들, 그것들의 구조, 그리고 이것들로 초래된 결과들
 - 낙인화, 탈 낙인화의 건강 영향들
- 磨耗 condition their susceptibility to many of the chronic illnesses that have become the dominant causes of mortality in the developed world

트라우마 사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메르스 파동, 경주 지진 등 잇따른 사건과 자연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그러나 국민 정신 건강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

“(전략)분노, 배신감, 불안, 우울, 좌절이 뒤섞인 혼란 상태다. 많은 사람이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정치인, 고위 관료 등을 탓하고 비난하는 이유다. 이렇듯 모두가 국가적 위기라고 걱정한다.”

(이철, 국립정신건강 센터장 시사저널 인터뷰 발췌)

트라우마 사회

- 2017년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세션 (Beyond suffering Korea) 발표 후 김현수 (정신건강의학) 교수께서 토론 중 “한국인은 우울, 분노와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에 잘 빠져든다”는 말과 함께 울분을 언급→ 뇌리에 박힘
 - 울분이란 말 자체+정신 ‘질환’과 ‘병리적’ 사회 문제 사이 존재할 것 같다는 감
- 검색 시작→ resentment, outrage, indignation 등으로 보면 문학 작품 위주
- 국문 학술 검색을 하자 울분 연구들이 나타남→ embitterment 를 울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울분 연구를 주도하는 독일 정신건강의학자 Linden 팀의 연구를 접함 → ‘이거다!’

빠른 속도 자체가 힘들다 한국인의 정신병리적 특성 (현대)

세대간의 소통은 갈 수록 어렵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다

자식이 자식 같지 않다

마음 둘 곳이 없다

공유할 것이 없다

-- 단절이 심하다

* 할 수있다 증후군

기적을 만든 민족, 한강의 기적, IMF의 기적

* 더 잘해봐 증후군 (시맨즈 등)

만족을 모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부모들의 특징

→ 미국에서 실시한 자녀만족도 → 아시아 민족의 만족도가 낮음.

* 마음의 평등주의, 집단주의 습관 (송호근 등)

집단주의에 기초한, 다 같아야 한다.

획일성과 유행, 빠질 수 없다

* 가족주의 = 모계주의 = 모자일체화

아버지가 없는 가족 → 어머니가 없는 가족 → 형제가 없는 가족

그래도 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제도를 버티고 있는 핵심적 상황

새로운 정신병리

- ◆ 저성장 불완전고용사회의 진입 : 10년째
- ◆ 격차 사회의 고착화 : 88만원세대 -> 잉여 --> 흡수저 (신 신분제 사회), 계층이동의 불가능
- ◆ 학벌에 기반한 일찍부터 시작되는 차별사회 : 특목고 제도 이후 악화된 상황
- ◆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어른이 되는 아이들 사회
- 아파트 살면서 정원도 가꾸지 않으니 못질 한번 해본 적 없다
-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것
- ◆ 만화같은 일이 일어난다

가장 핵심적인 아픔

유아적 전능감은 지속되는데,
사회적 성취는 없다

모자일체화가 장기화되고
의미있는 분리, 성숙은 없다

기적이 일어나야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살면서
다 들여다보아서 감출 수도 없다

초등학교 때 수치심을 배우고
중학교 때 외로움에 눈 뜨고
고등학교 때 불안을 경험하고
청년이 되면 죽음을 생각한다
이 세상은 나랑 안맞았다.....

개념과 모델 소개

- 용어
- 모델
-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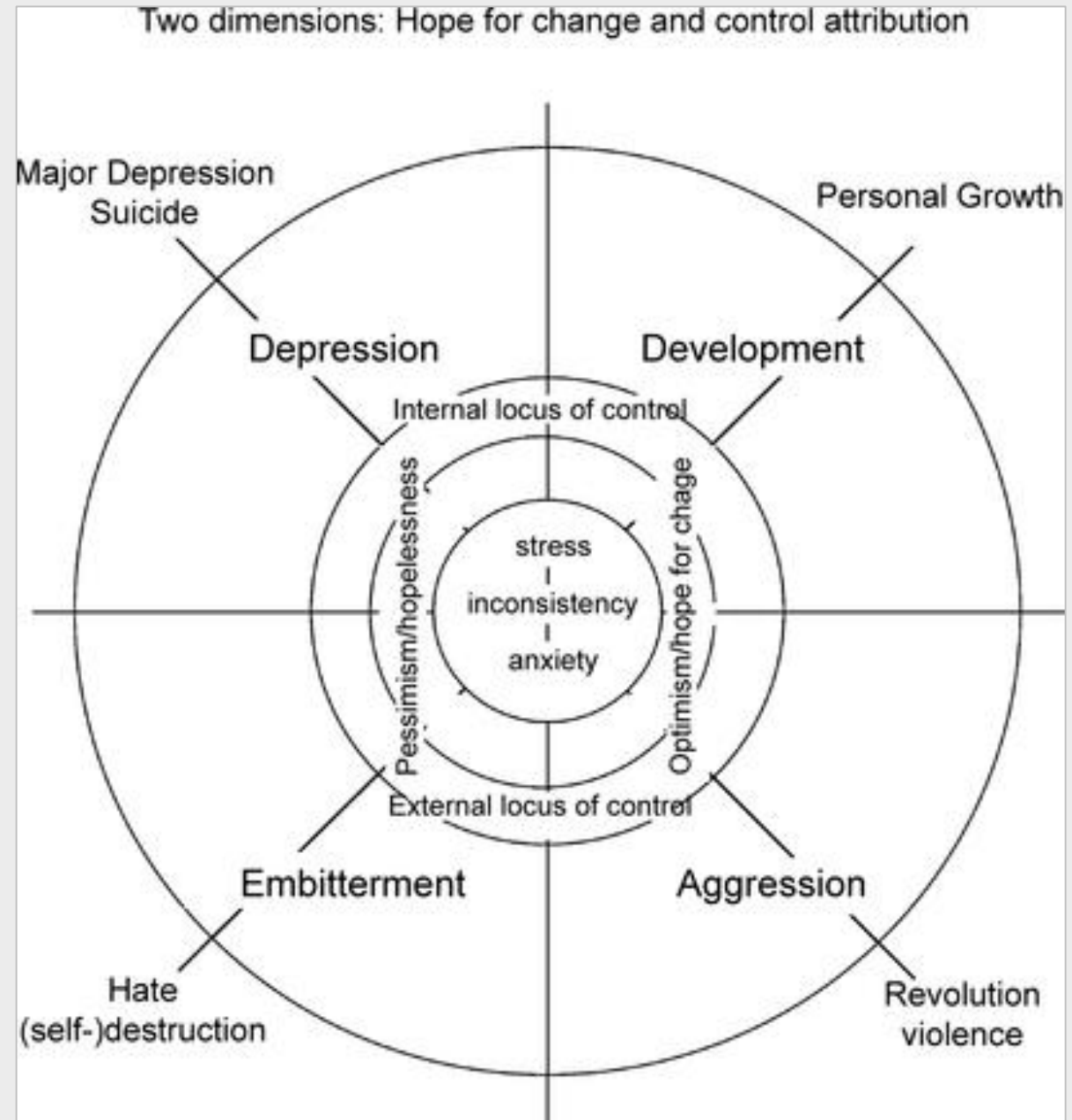
울분 (용어)

- Bitter는 맛, 성격, 정서를 표현하는 일상어
- 종종 합성어 형태로 사랑, 삶과 죽음, 고통을 표현 (bitter sweet)
- 학계에 외상후울분장애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를 처음 소개하고 진단 알고리즘 및 자가측정 도구를 제시한 린든 등은 (2011) 울분에 관한 책을 출간하면서 울분이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감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인용
 - 그리스어 pikros → 독일어 Verbitterung → 영어 bitter, embitterment 로 받음
- 고한석 외 (2014)가 embitterment/PTED를 분노발작, 충동조절에 가까운 격분장애보다는 울분(鬱憤)/외상후울분장애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옴김

울분 (용어)

- 울분 as affect: 외부 세계가 일으킨 grievance (고충/불만)에 대한 정당화된 느낌으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음; 심해지면 불공정함을 향한 '버닝' 생기고 극심해지면 자기비난과 자책으로 자아 보호에 실패함 Alexander (1960)
- 울분 as emotion: 실망감, 모욕감, 루저가 된 기분, 당한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감정과 동시에 사전에 일을 막지 못했다는 자기비난, 코너에 몰린 듯 속수무책으로 도움 받을 길이 없다는 무력감,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에 공격적이 될 수 있는 mental state

안티 프레임 (모델)



울분 (PTED)

- 스트레스 유발 생애사건 경험 후 그 일이 부당하다는 생각과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 현재의 불리한 상황은 그 일 때문이라는 생각이 침습하여 지속되고, 분노에 절망과 무력감이 결합된 채로 감정이 악화되고, '리벤지 판타지'가 생기고, 소득 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만성적 반응 장애
- 참고자료 (조성일 교수님 발표자료 별첨)

울분의 발생 기제

Trigger	부정적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애사건
Interpretation	이 일은 정의에 어긋남/나는 무고함/나는 피해자
Affect modulation	세상은 통제 가능하고 예상 가능하다는 기본 신념 및 가치가 균열을 넘어 깨짐
Reaction	울분 (이후 격분, 무력감과 결합한 감정 각성 지속) 침습적 사고
Duration	6개월 이상 (전반적인 'unwilling' 상태)
Consequences	적응 장애 (자기 통제력 상실, 사회적 기능 불능, 혐오/공격/복수 행동 (Dobricki & Maercker, 2010는 스트레스 적응 장애로 울분을 보기도 함))

울분의 발생 기제

- **부정적인 생애사건**: 통일 같은 정치적 격변도 있지만, 이혼, 실직, 정리해고, 심한 질병 같은 부정적이지만 일상에서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생애사건
- **기본적 믿음 및 가치관 손상(violation of basic beliefs and values)**: 이런 기본적 믿음(basic belief)은 개인의 경험, 지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세상은 예견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하는 인지적 스키마. 유년기에 학습되고 쉽게 변하지 않음. 만일 외상적 사건이 이 기본 가정과 믿음을 파괴한다면 그 대응으로 울분이 발생할 수 있음. PTSD와 달리, 기본 신념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재와 신념 사이의 고도의 부조화는 부정적 감정인 울분감을 지속, 악화시킴
- **부당함, 불공정 인식**: PTED 진단의 핵심은 스트레스성 사건경험을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

울분(측정도구)

- PTED self-rating scale(이하 PTED scale): 자가 보고 형식으로 울분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개발된 것 (Linden 등 2003;2009)
- 총 19문항, 5점(0~4) 척도, 2 요인으로 구성
- 19개 항목의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장기간의 울분감으로 고통 받는 상태
- 2.5점=절단값(cut-off value) 2.5점 이상이면 중증의 심한 울분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

울분의 영향

- 울분은 prevalent emotion: 증가와 그 변화의 가시성 사례 보고 지속
- 삶의 질, 행복감에 부정적, 우울에 정적 상관성
- 만성 울분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축이며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경험상, 만성적 울분 환자들은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으며 소득활동이 불가능
- 심각한 울분은 공격, 파괴 등 자기 자신과 주변에 부담, 피해, 고통을 안길 수 있음
-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설명하는) 조건이며 사회갈등 지속의 이유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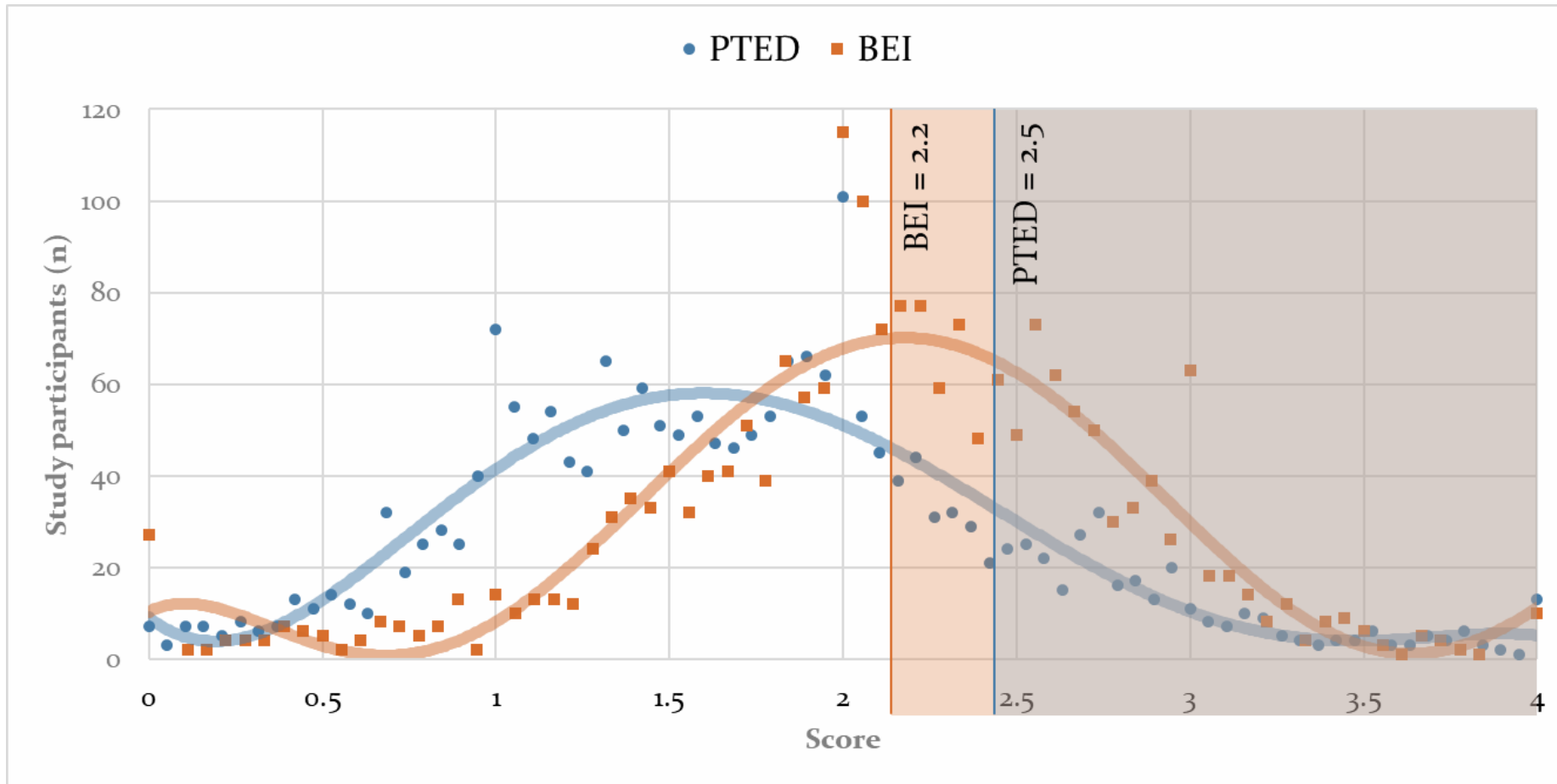
현황

- 2018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 결과
- 2018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결과
- 이후 수행 중인 조사 결과

측정 도구 별 절단값 (cut off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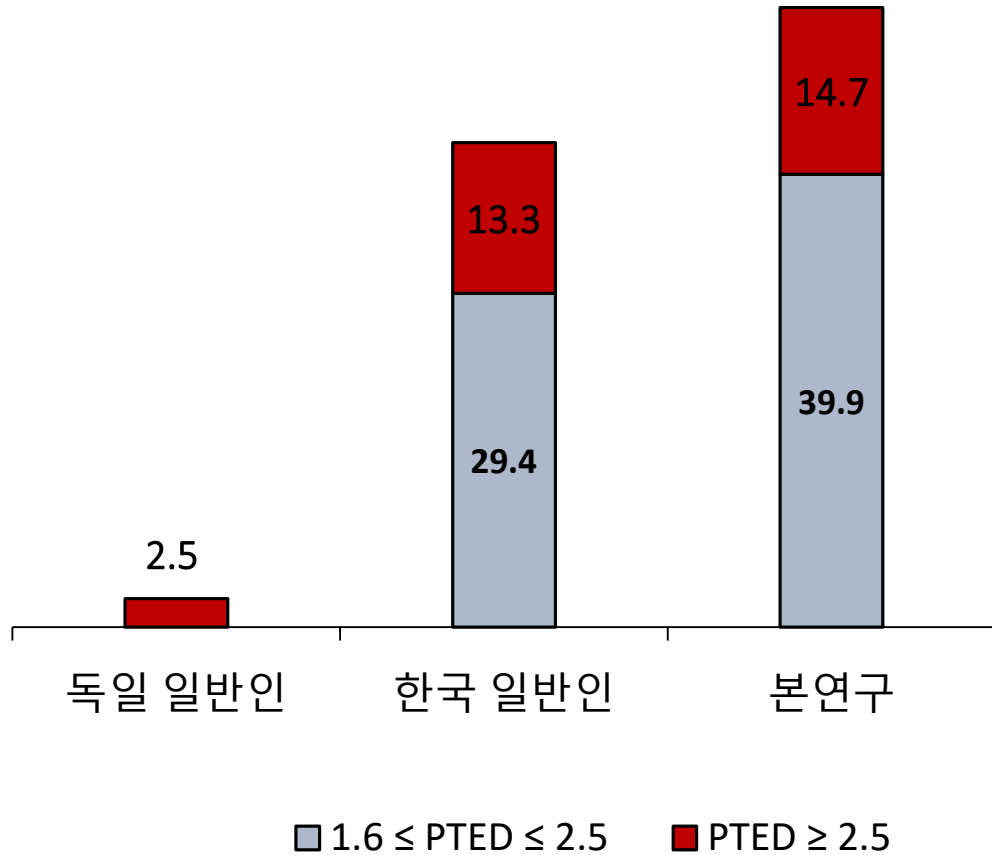
	PTED self-rating scale		Bern Embitterment Inventory	
절단값 cutoff	1.6 미만	이상 없음		
	1.6~2.5	장기간의 울분으로 고통 받 는 상태/임상적으로 유의한 울분 상태	2.2 미만	Low embitterment
	2.5 이상	중증도 이상의 울분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	2.2 이상	High embitterment
분석	(1) 도구가 제시한 절단값 기준, 각 2개 집단 구분하고 특징 파악 (2) PTED BEI를 교차하여 4개 집단 확인 특징 파악 (3) 주·객관적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별 분석			

월분 점수 분포



울분 점수 (PTED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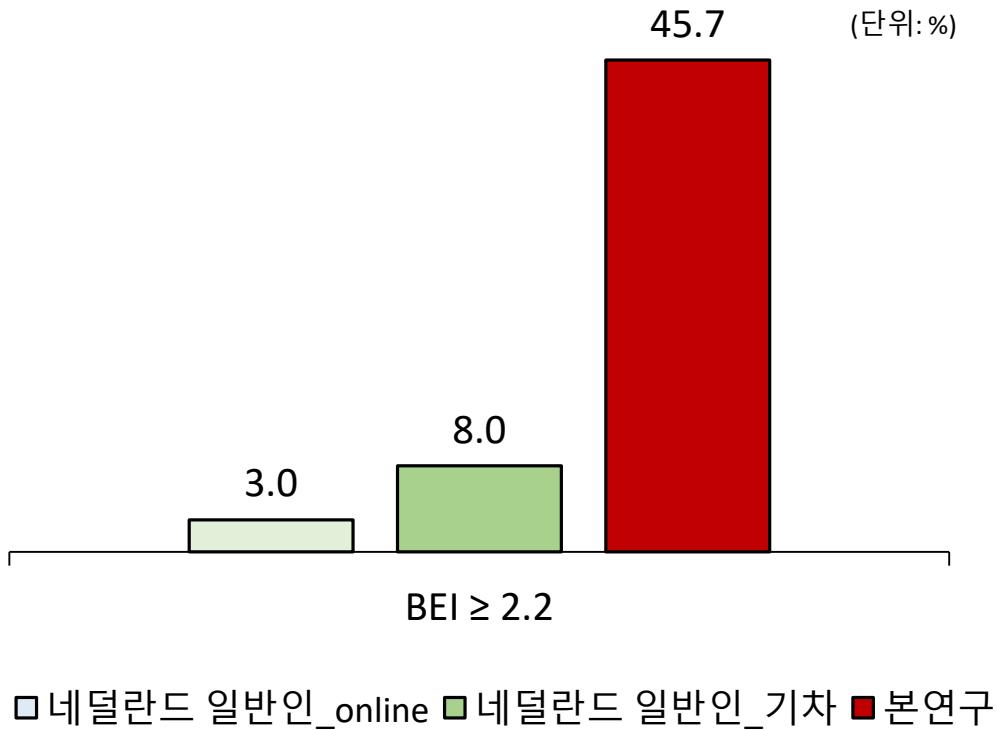
(단위: %)



연구 대상자	N	PTED 점수 (mean±SD)	≥2.5 이상	비고
본 연구	2,204	1.73±0.74	14.7%	• 웹 조사
한국 일반인	2,101	1.48±0.87	13.3%	• 웹 조사 • 이승훈 외(2017)
독일 일반인	158	0.58±0.60	2.5%	• Linden et al.(2009)

응답자 14.7%가 중증 울분으로 분류
 장기간 울분 상태 (1.6-2.5 점 사이)까지 포함하면 54.6%
 2015년 측정된 이승훈 외(2017)와 비교 시 2.5점 기준
 1.4%p 상승한 것
 독일보다 훨씬 많은 일반인이 중증 울분으로 분류

울분 점수 (BEI 적용)



연구 대상자	N	BEI 점수 (mean±SD)	≥2.2 이상	비고
본 연구	2,204	2.11±0.68	45.7%	• 인터넷 설문조사
네덜란드 일반인	270	0.92±0.60	3%	• Blom • Online survey
네덜란드 일반인	159	1.00±0.68	8%	• Blom 외, 2012 (기차 승객 대상 조사)
네덜란드 환자	64	1.30±0.90	16%	• Blom 외, 2012 • 직장인
네덜란드 환자	561	0.92(mean)	20%	• Blom 외 • 우편 조사 • 장애연금 수급자(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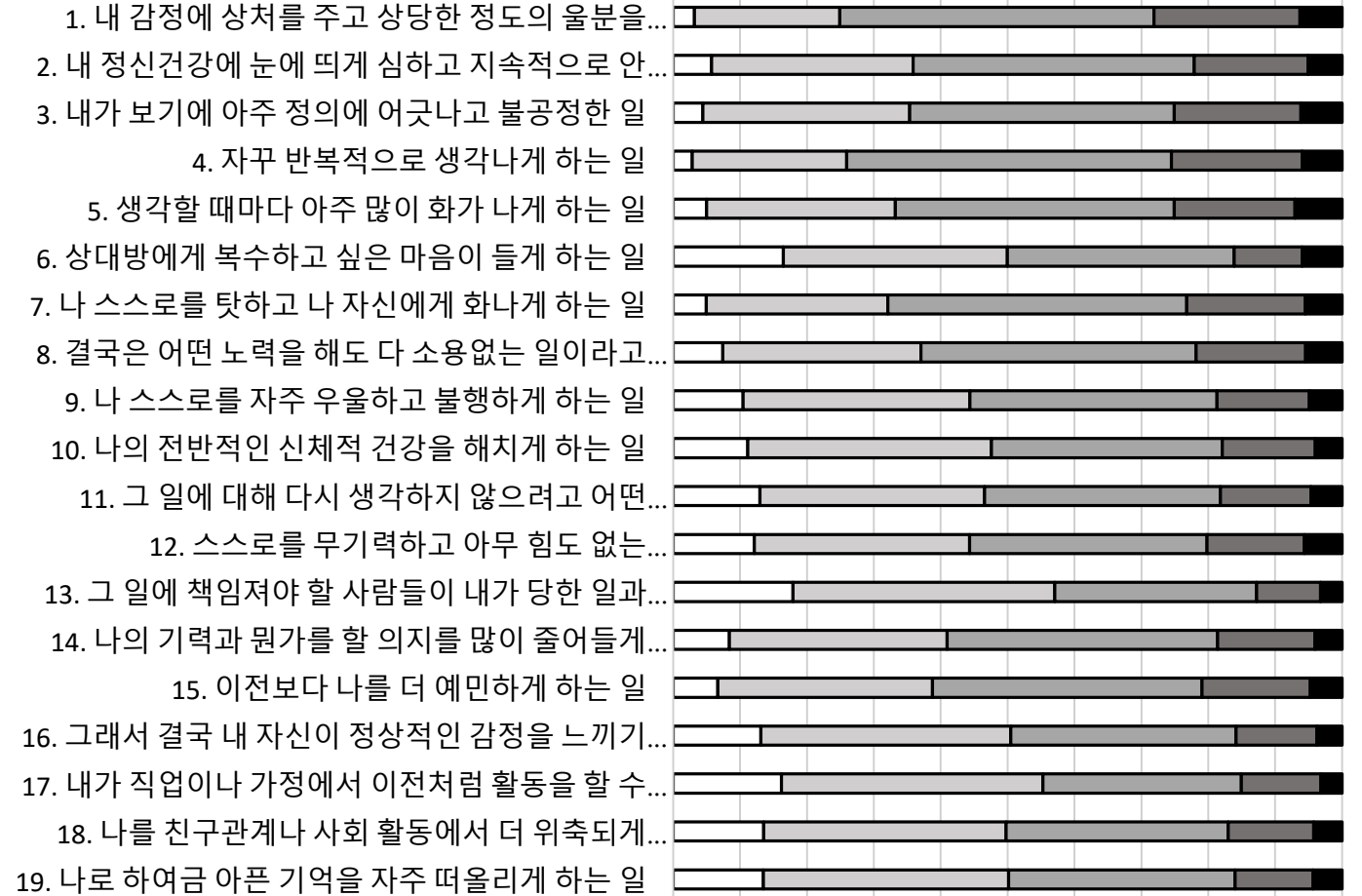
BEI로 측정 시 응답자의 약 46%가 고 울분 집단으로 분류됨
네덜란드의 연구가 있지만 표본집단 특징,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커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울분 측정 문항별 응답 분포 - PTED 문항

PTED 문항별 응답 분포

(단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 전혀 없었다 (0) □ 거의 없었다 (1) □ 약간 있었다 (2)
 ■ 많이 있었다 (3) ■ 아주 많이 있었다 (4)

울분 측정 문항별 응답분포 - PTED 문항

- 3점 이상 응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가 가장 높은 3 문항
 1. “내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당한 정도의 울분을 느끼게 하는 일”(28.1%) - PTED 2요인
 2.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일”(25.5%) - PTED 1요인
 3. “내가 보기에 아주 정의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일”(25.1%) - PTED 2요인
- 성별에 따라 평균에 차이가 나는 3개 문항
 - **남자 > 여자**
 1. “내가 보기에 아주 정의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일”(남자 1.96 ± 0.98) - PTED 2요인
 2. “그 일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내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똑같이 당하는 것을 상상하고 나면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일”(남자 1.48 ± 0.99) - PTED 2요인
 3. “내가 직업이나 가정에서 이전처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남자 1.52 ± 0.99) - PTED 1요인
 - **여자 > 남자**
 1. “내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당한 정도의 울분을 느끼게 하는 일” (여자 2.12 ± 0.92) - PTED 2요인
 2.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일”(여자 2.08 ± 0.90) - PTED 1요인
 3. “나 스스로를 자주 우울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 (여자 1.73 ± 1.01) - PTED 1요인

울분 측정 문항별 응답 분포 - PTED 문항

- 연령대 따라 평균이 차이가 있는 울분 문항 (20대가 높은 문항)
 1. “4.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일” (2.21±1.02) - PTED 1요인
 2. “7. 나 스스로를 탓하고 나 자신에게 화나게 하는 일”(2.10±1.03) - PTED 2요인
 3. “9. 나 스스로를 자주 우울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1.81±1.12) - PTED 1요인
 4. “12.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1.86±1.14) - PTED 1요인
 5. “14. 나의 기력과 뭔가를 할 의지를 많이 줄어들게 하는 일”(1.90±1.09) - PTED 1요인
 6. “15. 이전보다 나를 더 예민하게 하는 일”(2.01±1.06) - PTED 2요인
 7. “18. 나를 친구 관계나 사회 활동에서 더 위축되게 하는 일”(1.73±1.19) - PTED 1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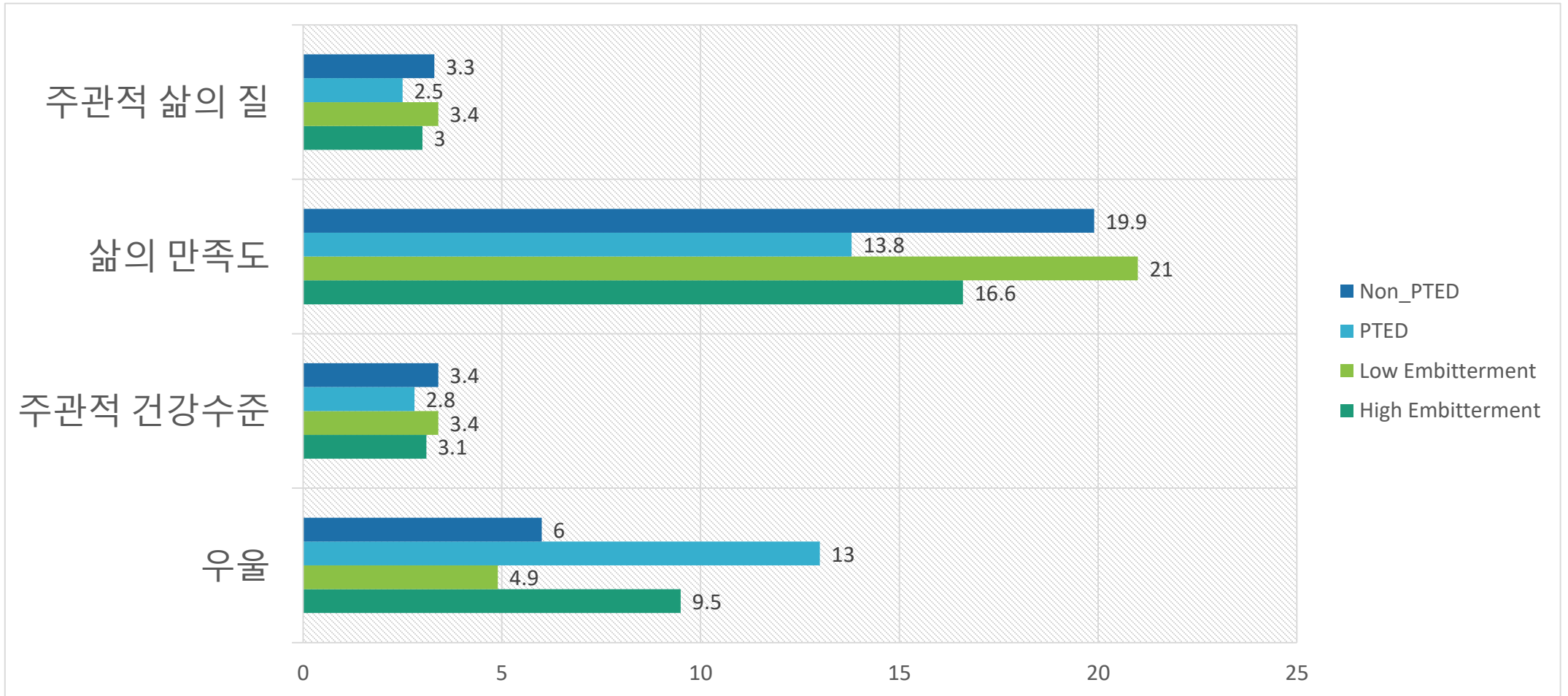
성별 및 연령 별로 울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합산) 에 대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남성-정의에 어긋하는 일, 복수심을 느끼게 하는 일

여성-나를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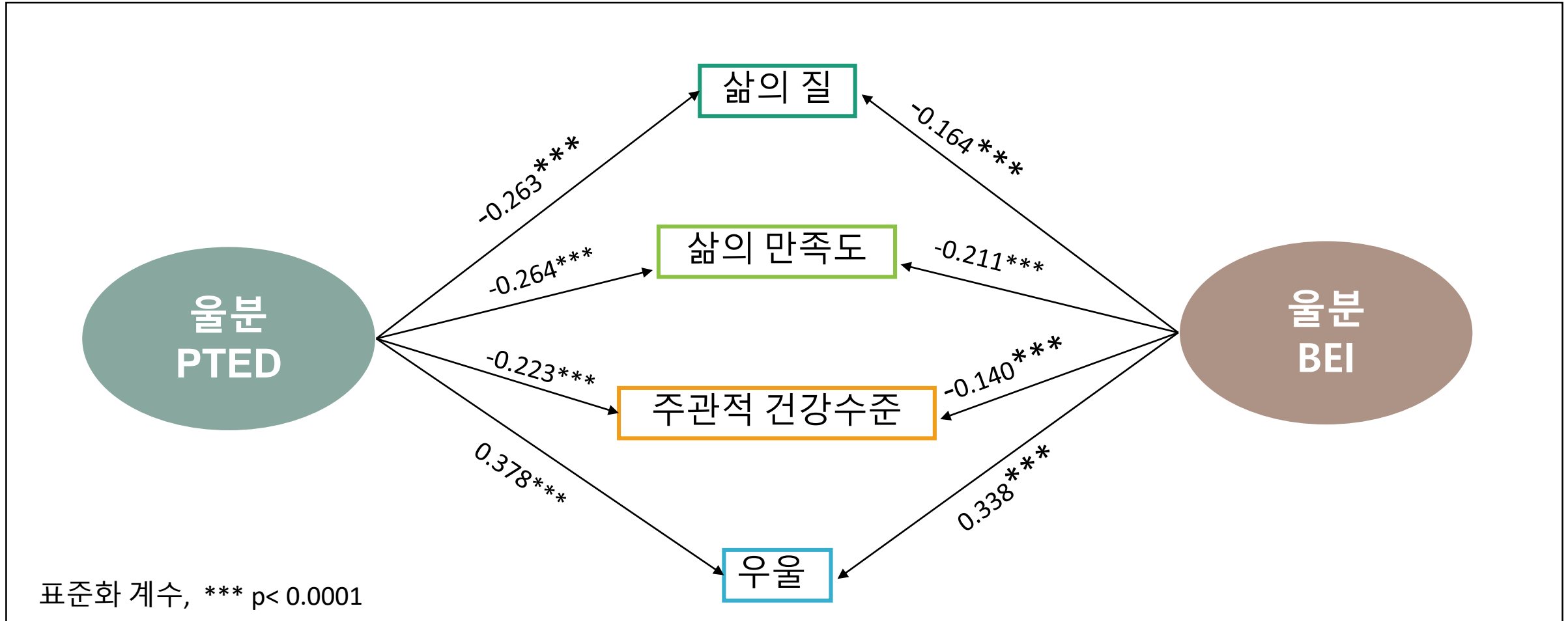
20대-나를 자책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

울분 집단 별 건강과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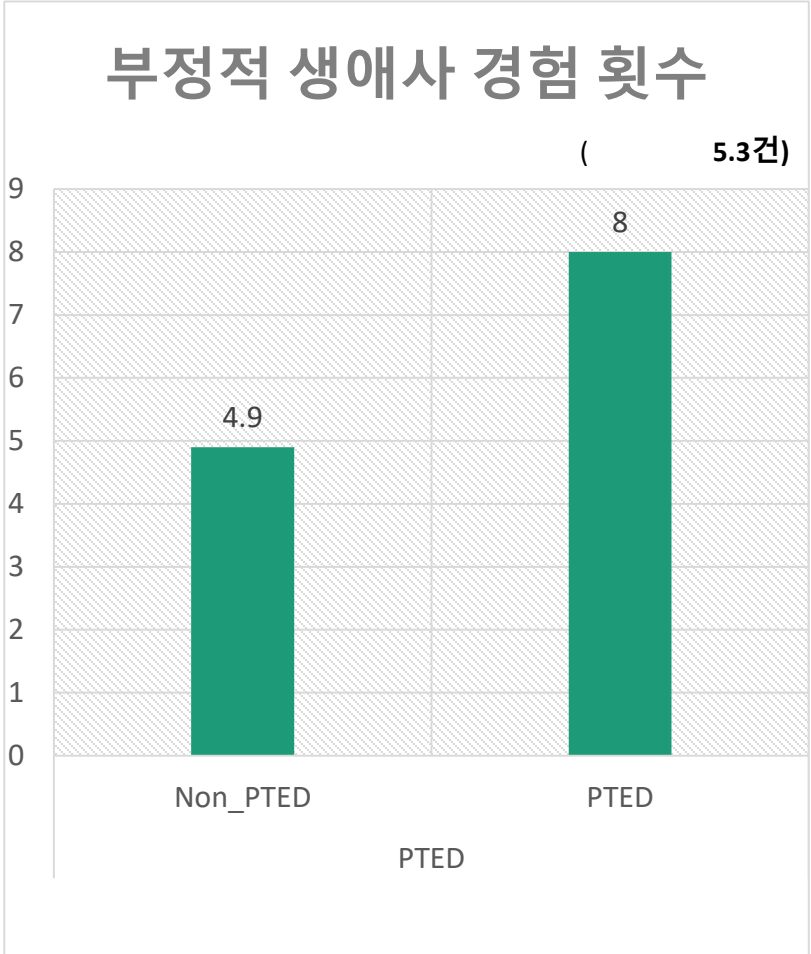
- PTED 기준 중증 울분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건강과 주관적 웰빙 수준 모두 낮음($p < 0.0001$)
- BEI 기준 고 울분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건강과 주관적 웰빙 수준 모두 낮음($p < 0.0001$)

울분이 건강과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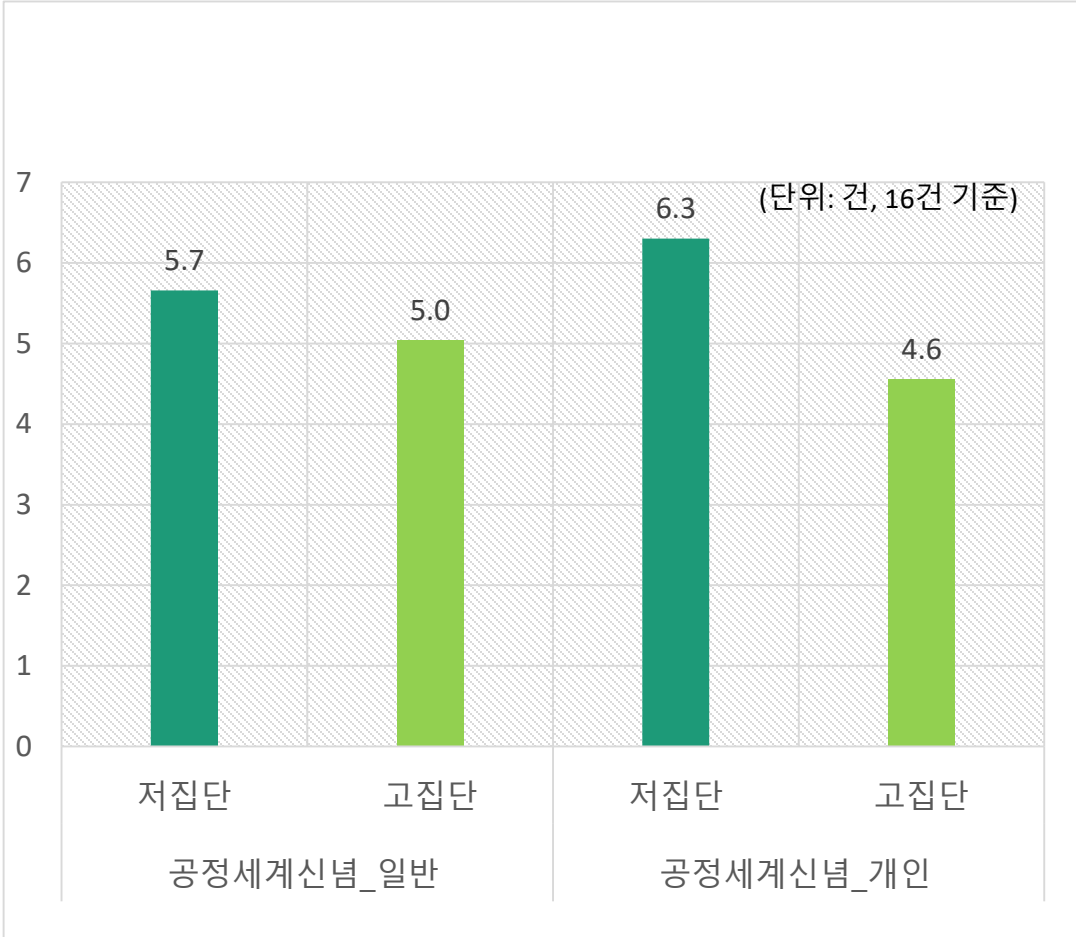


- 건강과 주관적 웰빙 평균값이 울분과 다른 집단 별로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서도 PTED, BEI 기준 울분 집단 모두 웰빙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 영향력은 PTED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남)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애사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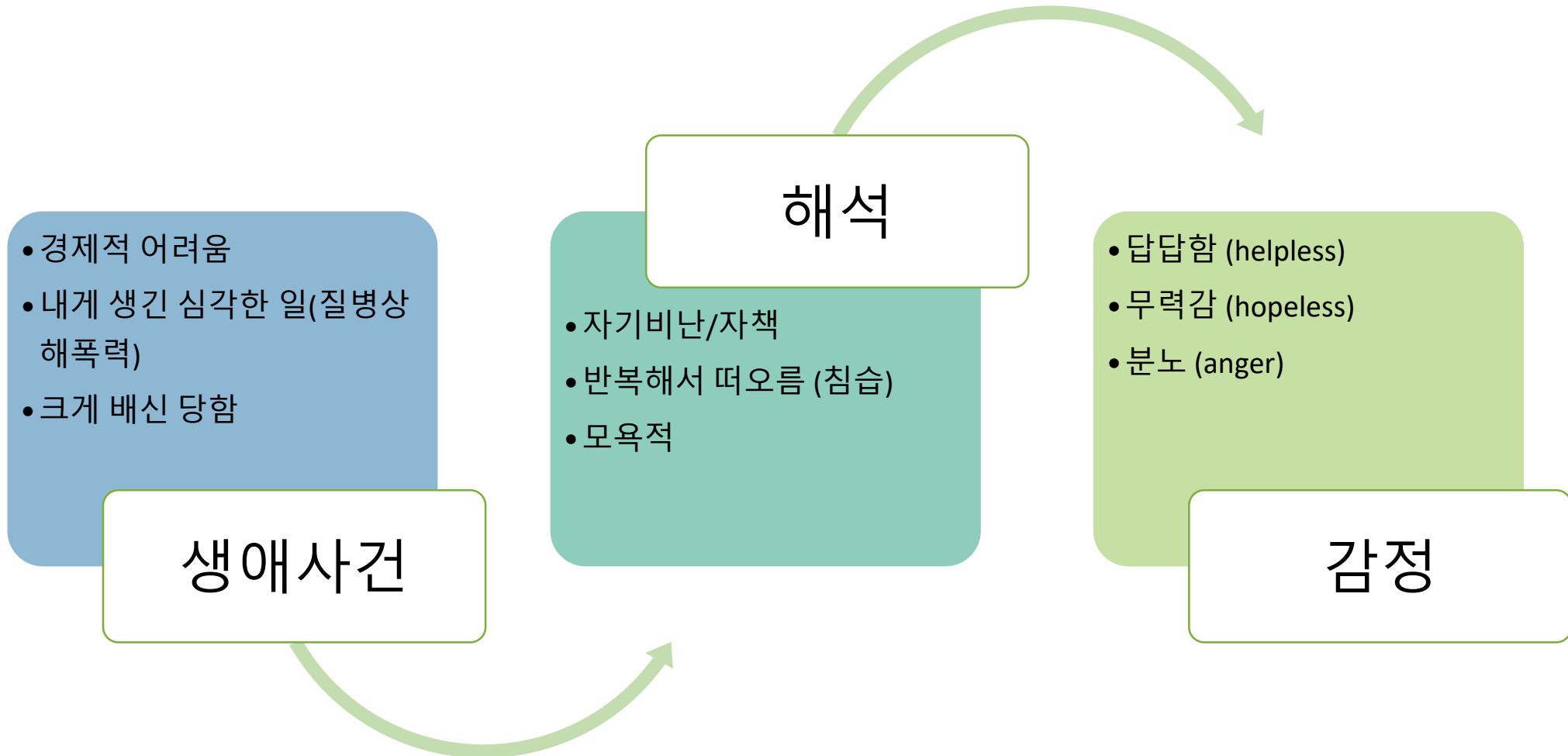


중증 우울분 집단은 살아가면서 부정적 생애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함 ($p < 0.0001$)



공정세계신념_일반 저 집단, 공정세계신념_개인 저 집단이 부정적 생애사 경험을 고집단들 보다 더 많이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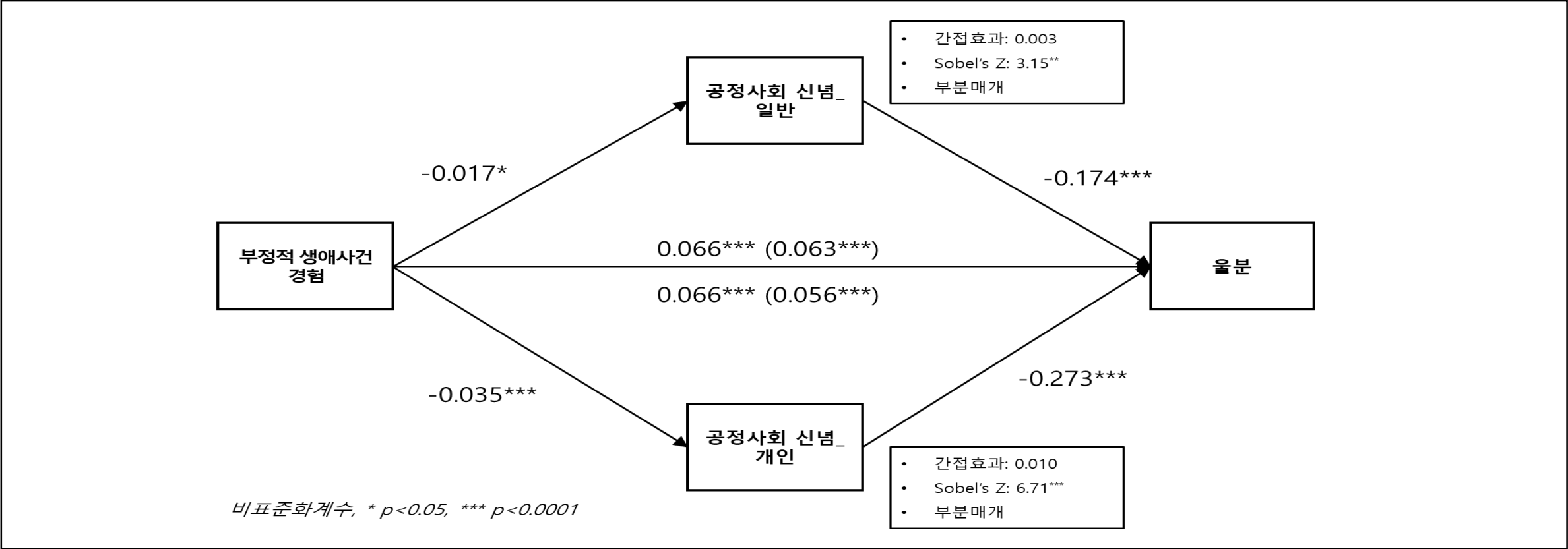
울분 집단 의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 해석, 감정



(참고) 사회경제 변수 별 공정세계 신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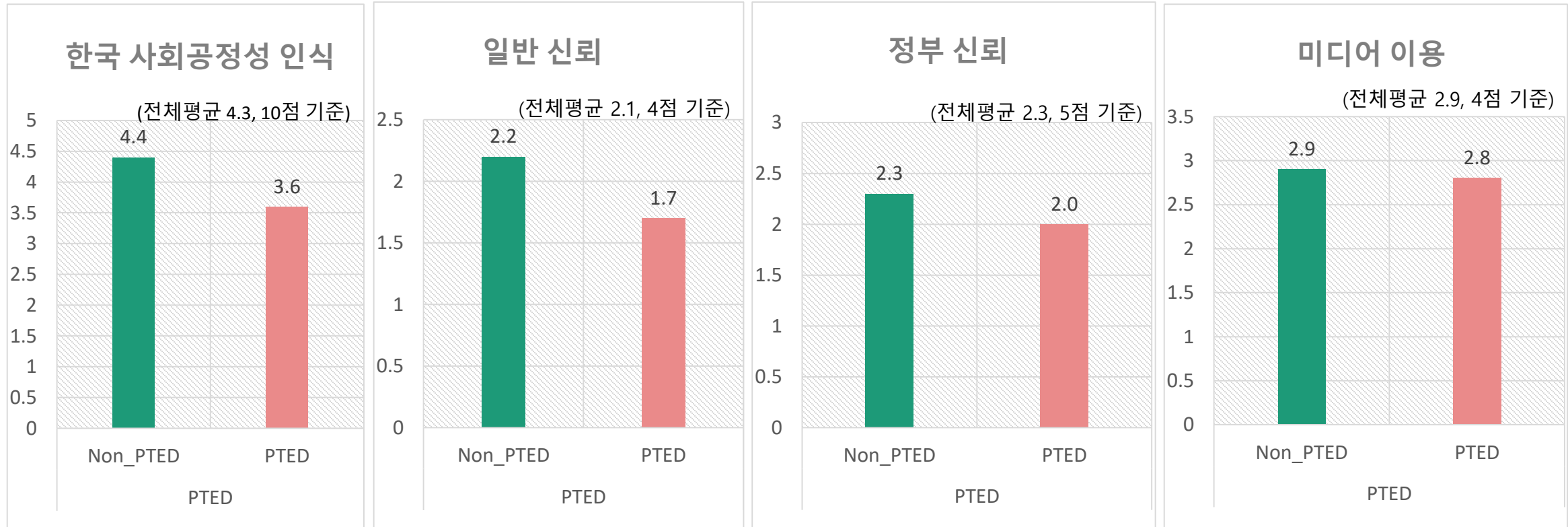
	공정세계신념_일반		공정세계신념_개인	
	비교	집단 비교 상세	비교	집단 비교 상세
성별	-		○	여성 < 남성
연령	-		-	
학력	-		-	
종교유무	○	무교 < 유교	○	무교 < 종교 있음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사별) < 미혼 또는 배우자 있음
고용상태	○	무직(구직, 실직) 낮음	○	무직(구직, 실직) 또는 무직(질병 또는 장애) 낮음
가구소득	○	200만원 이하 < 36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 361만원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	○	하위층 < 중산층 < 상위층	○	하위층 < 중산층 < 상위층
과거 계층인식*	○	하위층 < 중산층 < 상위층	○	하위층 < 중산층 또는 상위층
계층변화*	○	유지 또는 나빠짐 < 좋아짐	○	나빠짐 < 유지 < 좋아짐
정치성향	○	진보 < 보수	-	

부정적 생애사건과 울분: 공정세계 신념의 매개 효과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정세계 신념은 울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이 울분에 미치는 영향도 소벨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어 매개에 따른 간접 효과를 확인함. 또한, 이론 설명처럼 세상이 공정할 것이라는 일반 신념보다 세상은 나에게 공정할 것이라는 개인 신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울분 집단별 중요 변수 평균 점수



울분 집단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p < 0.0001$), 일반 신뢰 수준 ($p < 0.0001$), 사회 고위층(정치인, 고위관료 등) 신뢰 ($p < 0.0001$), 정부 신뢰 수준이 낮음($p < 0.001$)
미디어 이용 수준(종이신문, TV, 인터넷 포털 및 SNS 이용 정도)은 울분과 비 울분 집단 간 차이가 없음

사회적 사안 유발 율분의 영향 요인

연령대가 높을수록 ↑
정치성향이 '진보' 인 경우 ↑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
공정세계 신념이 높을수록 ↓
한국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
일반, 제도 신뢰 유의한 영향 없음

설명력
13.1%



연령대가 높을수록 ↑
여성인 경우 ↑
정치성향이 '진보'인 경우 ↑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수록 ↑
공정세계 신념이 높을수록 ↓
한국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
일반, 제도 신뢰 유의한 영향 없음

설명력
14.6%



올분 극복 요소 분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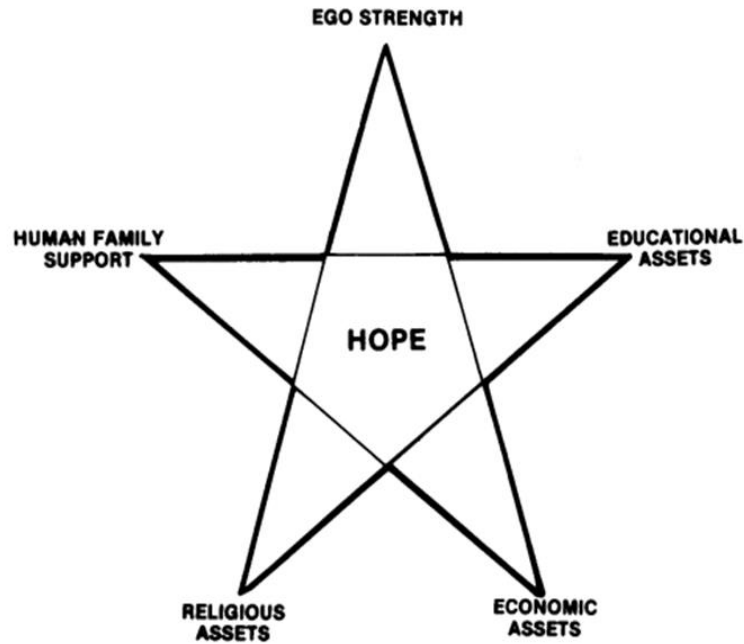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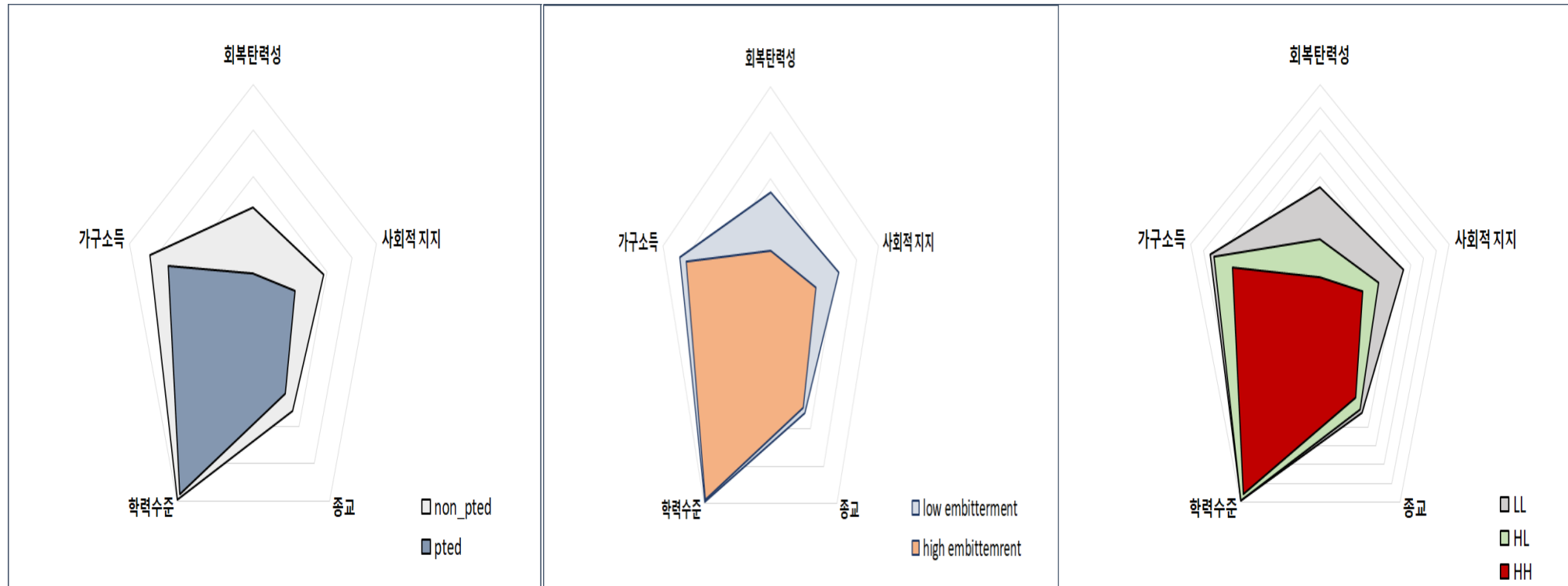


Figure 1. The Hope Pent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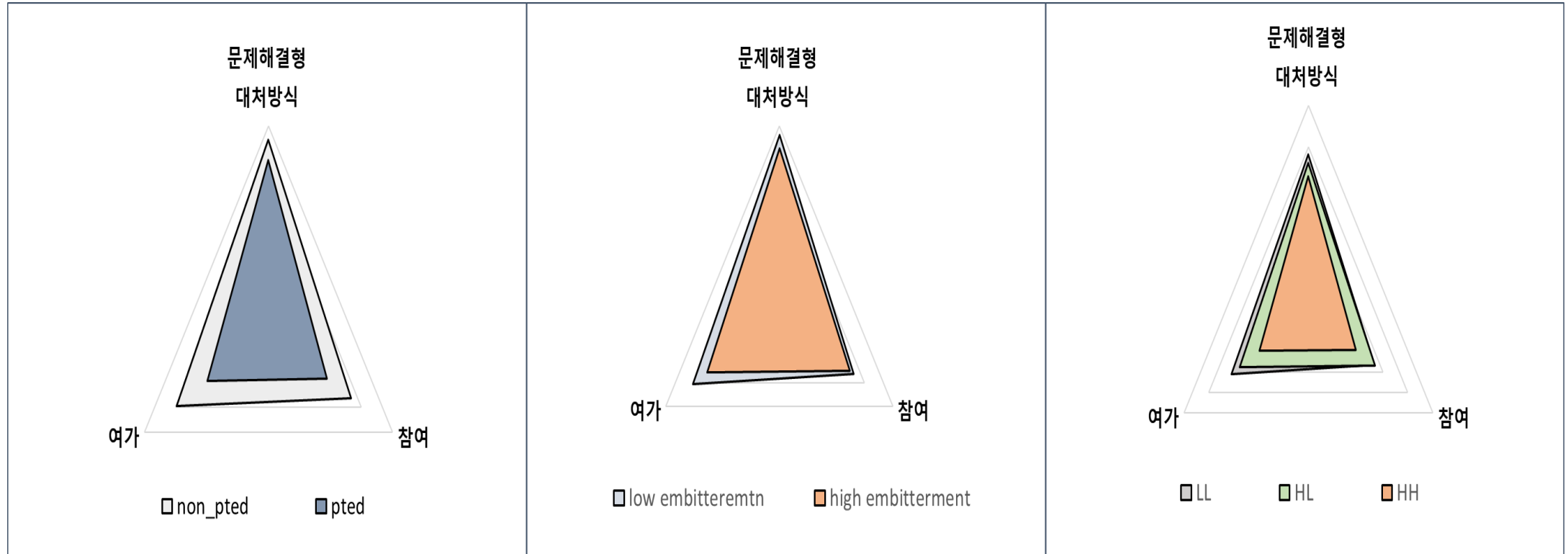
원 도구 개념	본 조사 변수	유형	cut_off	변환 유형
ego strength	개인 회복탄력성	연속형	평균 이상	범주형
perceived human family support	사회적 지지	연속형	평균 이상	범주형
Religious assets	종교	범주형	종교 있음	범주형
Educational assets	교육수준	범주형	중졸 이상	범주형
economic assets	가구소득	범주형	200만원 이상	범주형

울분 극복 요소 (hope pent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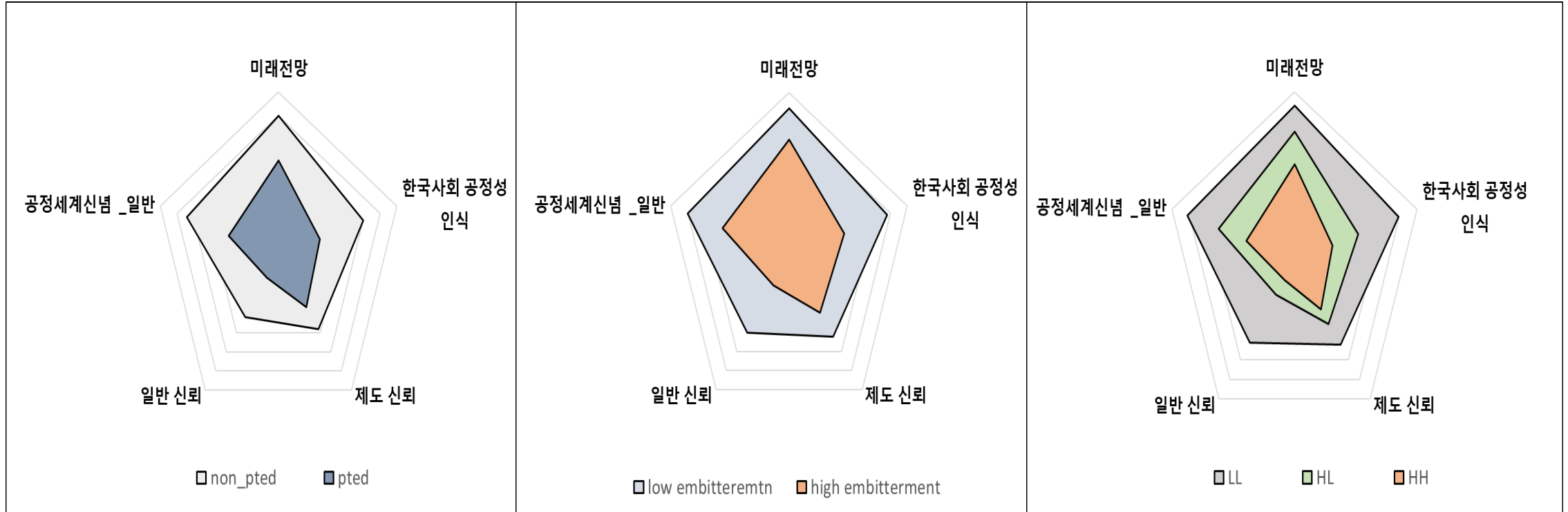
울분 집단은 회복탄력성이 낮고 사회적 지지, 경제적 asset 이 적음
즉, 이들 요인이 울분 극복에 유의미한 조건일 수 있음을 보여줌

울분 극복 요소 (사회적 자본-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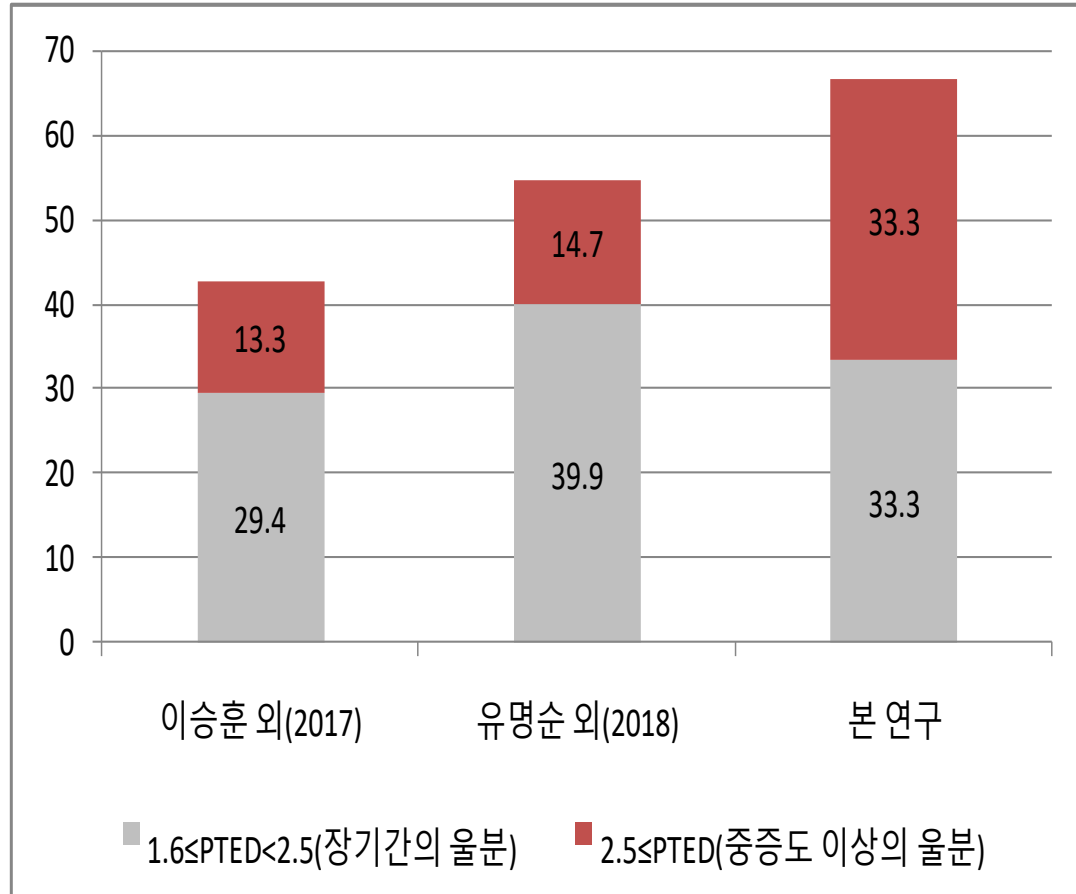
울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와 참여가 적음
 즉, 이들 요인이 울분 극복에 유의미한 조건일 수 있음을 보여줌

울분 극복 요소 (사회적 자본-신뢰)



울분 집단은 제도와 일반 신뢰가 낮고 그 외 사회와 미래 인식이 부정적이
이들 요인이 울분 극복에 유의미한 조건일 수 있음을 보여줌

3-3.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심각한 울분



- 성인 피해자 응답자의 66.6%가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 상태, 이 중 50%(전체의 33.3%)는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 상태를 보였음
- 국내 일반인 대상 선행 조사 결과 (서울대행복연구센터, 유명순 외, 2018)와 비교 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은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 집단의 경우 비율상 약 2.27배 높게 나타남
- 심각한 울분 집단으로 분류된 개인 중에는 실제 외상후울분장애 진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기에, 이 집단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응답자 전체 평균이 2.0으로 이미 전체 피해자가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사실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울분 감정 회복을 위한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함

한국형 외상후울분장애 척도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사용

19개 문항 점수 평균이 1.6~2.5 사이일 경우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 상태, 2.5이상일 경우 임상적 유의성이 있는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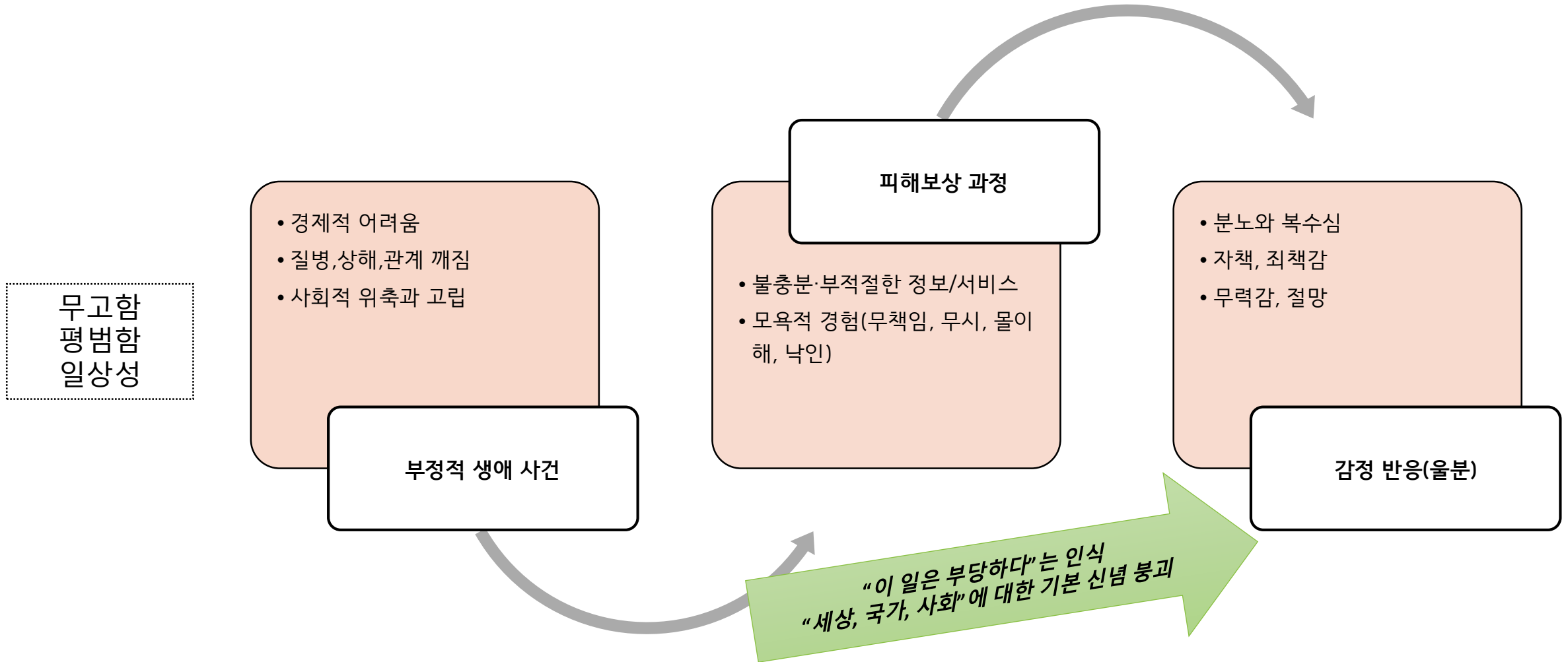
Linden M, et al. The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TED Scale). Clin. Psychol. Psychother 2009; 16:139-147; 신철민, 한창수 등, Korean version of PTED scale. Psychiatry Investig 2012;9:368-372

3-3.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율분의 자기파괴적 정신건강 영향

		응답자 전체		PTED (PTED ≥ 2.5)		non_PTED (PTED < 2.5)		χ²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우울, 의욕 저하	있음	84	65.12	38	88.37	46	53.49	15.3	<.0001
	없음	45	34.88	5	11.63	40	46.51		
불안, 긴장	있음	81	62.79	34	79.07	47	54.65	7.32	0.0068
	없음	48	37.21	9	20.93	39	45.35		
불면	있음	72	55.81	36	83.72	36	41.86	20.3	<.0001
	없음	57	44.19	7	16.28	50	58.14		
집중력, 기억력 저하	있음	77	59.69	37	86.05	40	46.51	18.6	<.0001
	없음	52	40.31	6	13.95	46	53.49		
분노	있음	83	64.34	42	97.67	41	47.67	31.2	<.0001
	없음	46	35.66	1	2.33	45	52.33		
음주 문제, 과도한 음주	있음	11	8.53	5	11.63	6	6.98	0.80	0.5046
	없음	118	91.47	38	88.37	80	93.02		
소진, 탈진	있음	47	36.43	26	60.47	21	24.42	16.0	<.0001
	없음	82	63.57	17	39.53	65	75.58		
죄책감, 자책	있음	80	62.02	34	79.07	46	53.49	7.96	0.0048
	없음	49	37.98	9	20.93	40	46.51		
자살 생각	있음	42	32.56	27	62.79	15	17.44	26.8	<.0001
	없음	87	67.44	16	37.21	71	82.56		
자살 시도	있음	16	12.40	12	27.91	4	4.65	14.2	0.0002
	없음	113	87.60	31	72.09	82	9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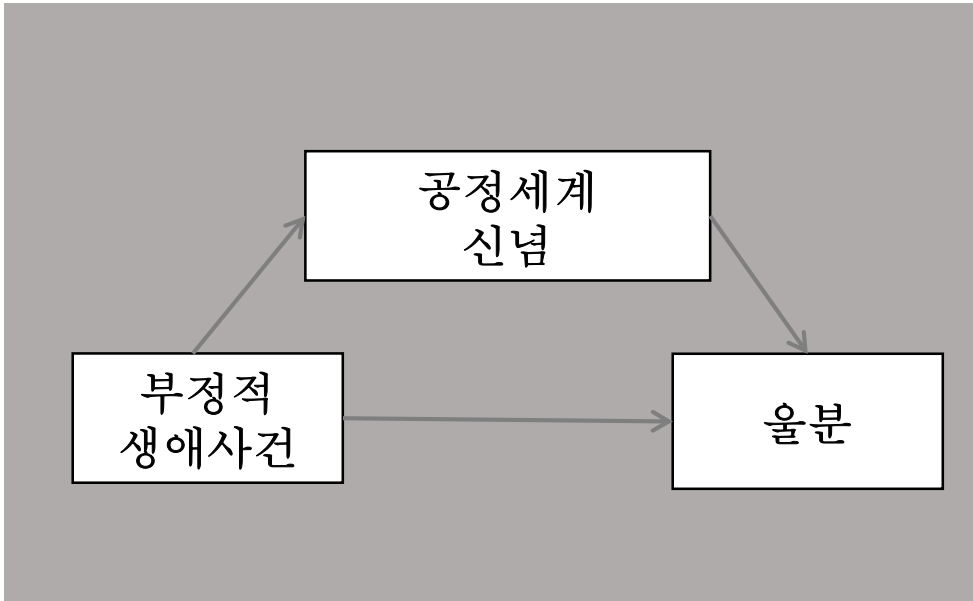
- 심각한 율분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음주 행동을 제외하고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를 비롯한 심리·정신 건강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이러한 내용은 율분 문헌들이 경고하는 율분의 부정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과 감정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역설함

3-3.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회적 울분'의 중요 사례



개방형 질문 응답을 질적으로 1차 분석한 결과, 이들의 울분은 현재의 피해보상 및 대응 체제가 양산하는 '사회적 울분'일 수 있음이 드러남

3-3.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회적 울분'의 중요 사례



"이 피해가..저는 완전히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바람에 이혼도 하고, 뭐 사업체도 다 망하고...완전히 재정적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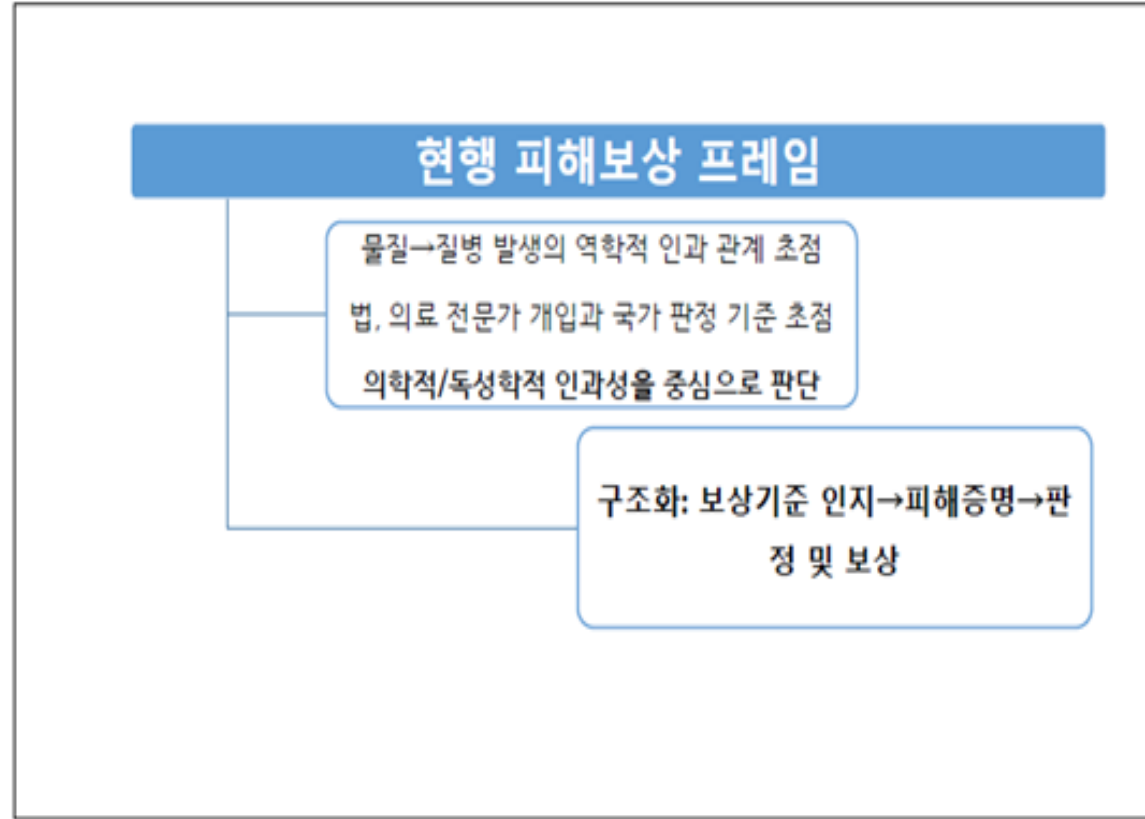
"가족 간의 문제라는 건...남겨진 자녀의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니깐, 실상 다른 아이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허가해줬잖아요. 허가했으면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가, 나쁜가...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 같아..그냥 뭐라 그럴까 종잇조각이나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같아요. 피해자한테 자꾸 증명하라고 하면 저는 가슴기를 다시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흡입해서 다시 임신해서 아픈 애를 낳고 부검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한테 뭘 어떤 식으로 증명하라는 건지. 뭘 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1990년~2018년 동안 국내 7개 일간지에 '울분'을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의 내용분석 결과 확인한 "사회적 울분" 즉, "각종 안전 사고·사건의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 박탈/근본적 요구 묵살로 국가와 사회를 향해 느끼는 분노" (출처: 유명순·주영기, 2019)를 대변하는 중요 사례로 보여짐

3-3. 피해자들에게 울분을 유발하는 '피해보상 프레임' 극복 필요성



- 개별성 (피해 당사자의 개별 노력)
- 보상을 위해 걸맞은 피해자 되기
- 피해자다움 요구

- (피해보상 매물로 인한)고립과 소외
- 2차 피해
- 역할 가중, 적용 기제 압박과 무리

프레임은 '주목 대상'과 '인지 방식'에 영향을 미침. 프레임을 통해 사태의 특정 측면을 부각하여 설명하면, 행위 주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근거하여 해당 사태를 판단하고 가치 평가를 내림(조원광, 2017). 만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적용된 지배적 프레임이 피해자의 실 피해와 어긋나면 피해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며 반영되지 못하고, 이차 삼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이것이 울분을 누적, 악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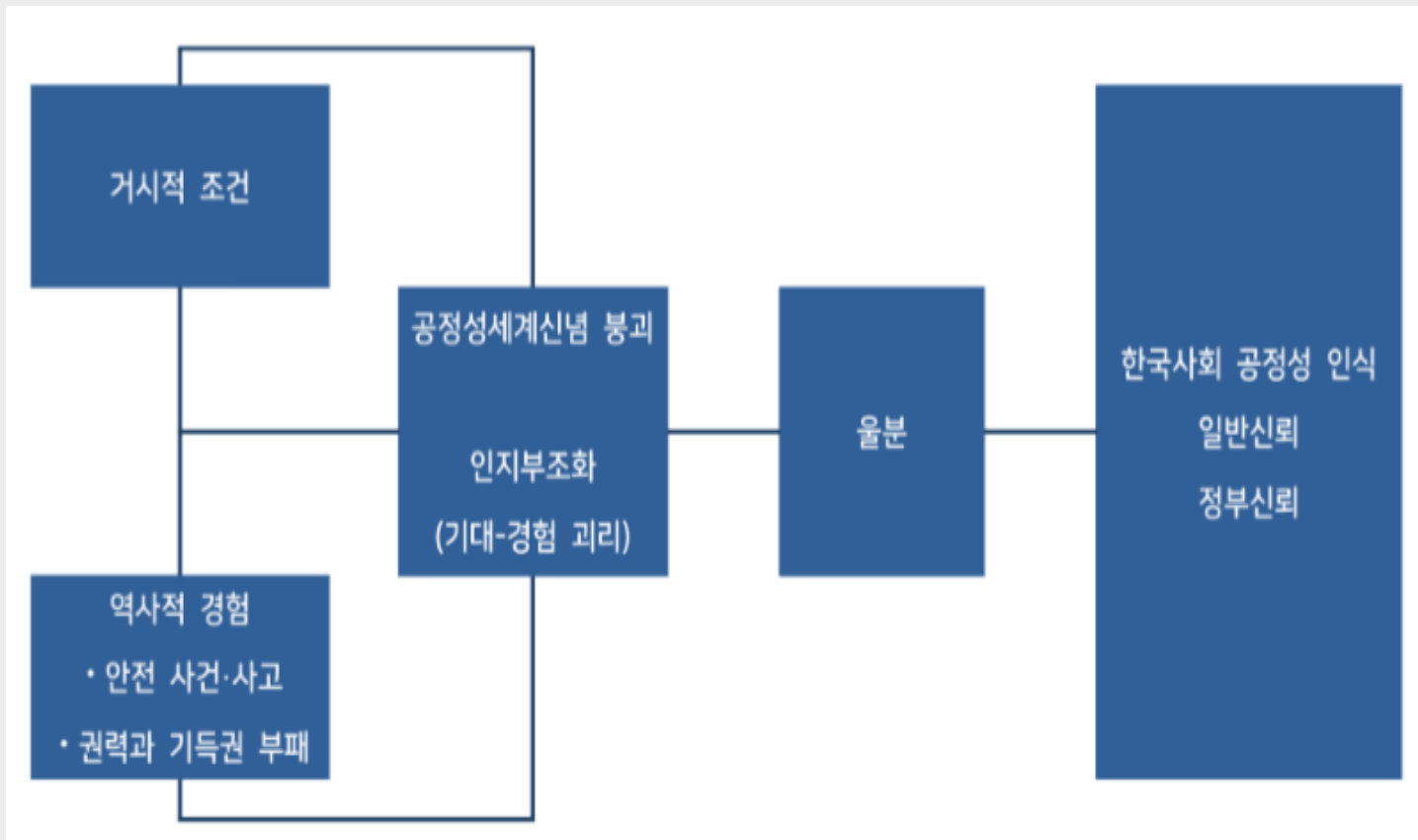
함의

- 울분은 한국사회의 Prevalent emotion
- 정치사회적 울분
- Workplace embitterment

울분(함의)

- (통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이주하며, 가족과 떨어져 일을 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음. 적응을 요구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이런 사회 변동이 개인의 대처역량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과도할 경우 울분은 그에 대한 반작용이 될 수 있음

정치사회적 울분



연구문제

'울분'을 표제로 한
국내 7대 일간지 기사
를 분석, 다음을
탐색함

1. 누가 울분의 대상으로 두드러지는가?

2. 무엇이 울분 유발의 주요 대상으로 드러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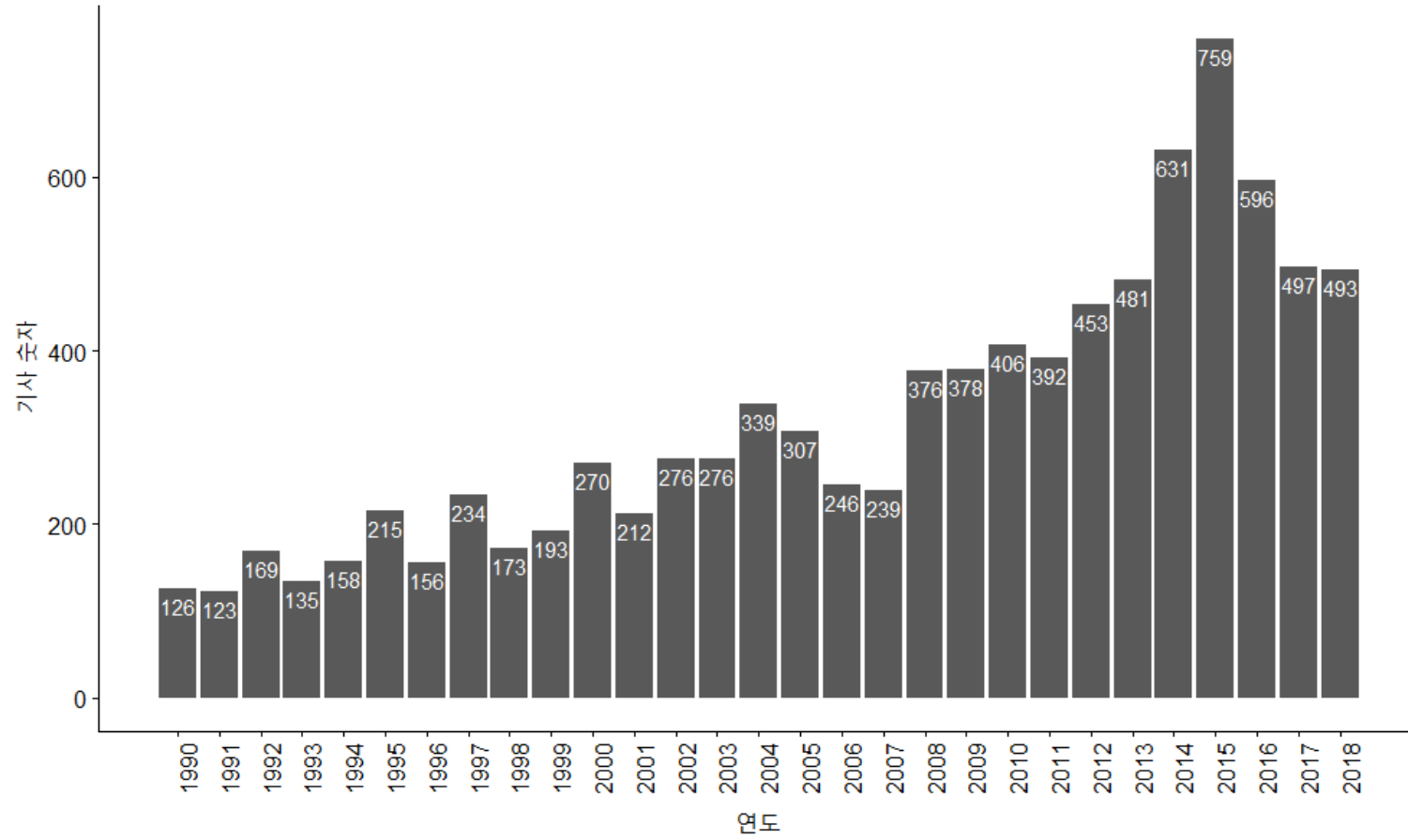
3. 울분 주체의 감정, 행동 반응은 어떤 것들이 확인되는가?

4. 울분과 함께 해법(해소방안)이 제시되는가?

내용분석 결과

- 누가: **사건사고 피해자** · 가족>정치인>노동자·농어민>국민 일반>
- 유발주체: **정부조직/관료**> 정치인/정당>기업>사회일반
- 유발이유: **기반 박탈/근본적 요구 묵살**>명예훼손, 모독, 누명>권력부조리, 갑질, 횡포
 - 기반 박탈/근본적 요구 묵살---사건사고 피해자 및 가족, 노동자/농어민, 경제계, 국민그룹
 - 명예훼손,모독, 누명---정치인, 공무원/군인
- 유발 감정: 1. 분노(anger)혐오(misanthropy), 2. (거절에 따른)실망/낙담(disappointment), 3. (미래/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한) 비관/절망(pessimism/hopelessness), 4. 모욕감/수치(insult/sh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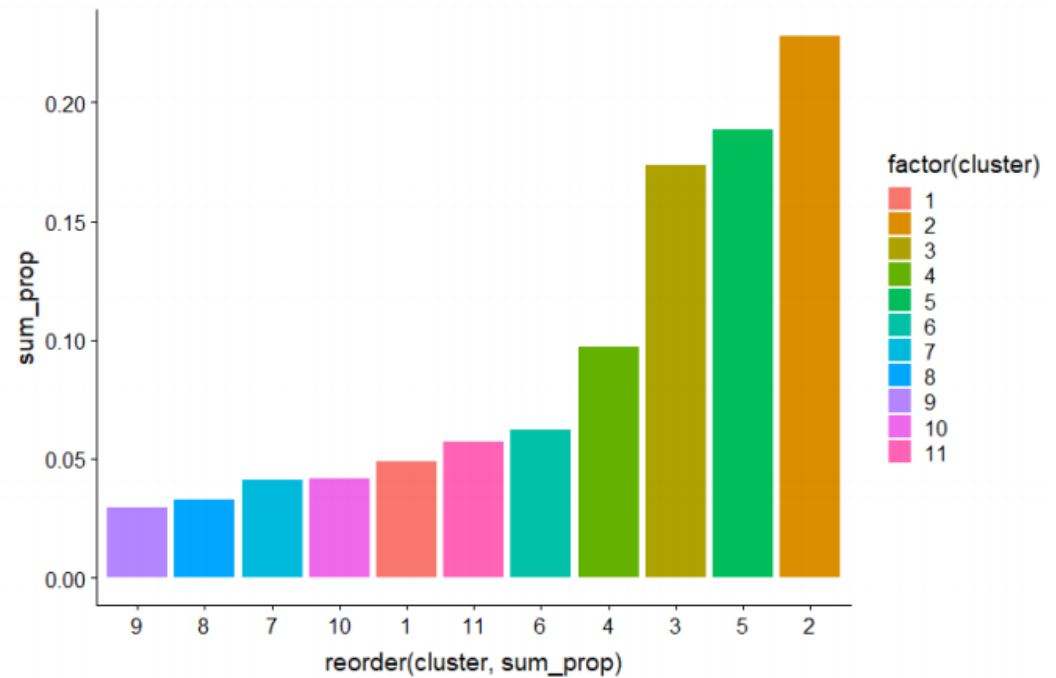
연도 별 기사 숫자



11개 클러스터 해석

클러스터	클러스터 해석
클러스터1	스포츠 관련 울분
클러스터2	사회 구조 및 체계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클러스터3	국가 정책 결정 및 정부 개입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클러스터4	예술, 역사와 관련된 울분
클러스터5	정치권 갈등에서 표현된 울분 및 국가 전체가 경험하는 울분
클러스터6	타 국가의 문제 혹은 타 국가와의 외교 문제 관련 울분
클러스터7	노사 관계 등 직장 생활 관련 울분
클러스터8	식민 경험 관련 울분
클러스터9	세월호와 북한과의 교전 관련 울분
클러스터10	대중문화에 (가요, 연극, 연기) 표현된 울분
클러스터11	예능 및 tv 드라마에 나온 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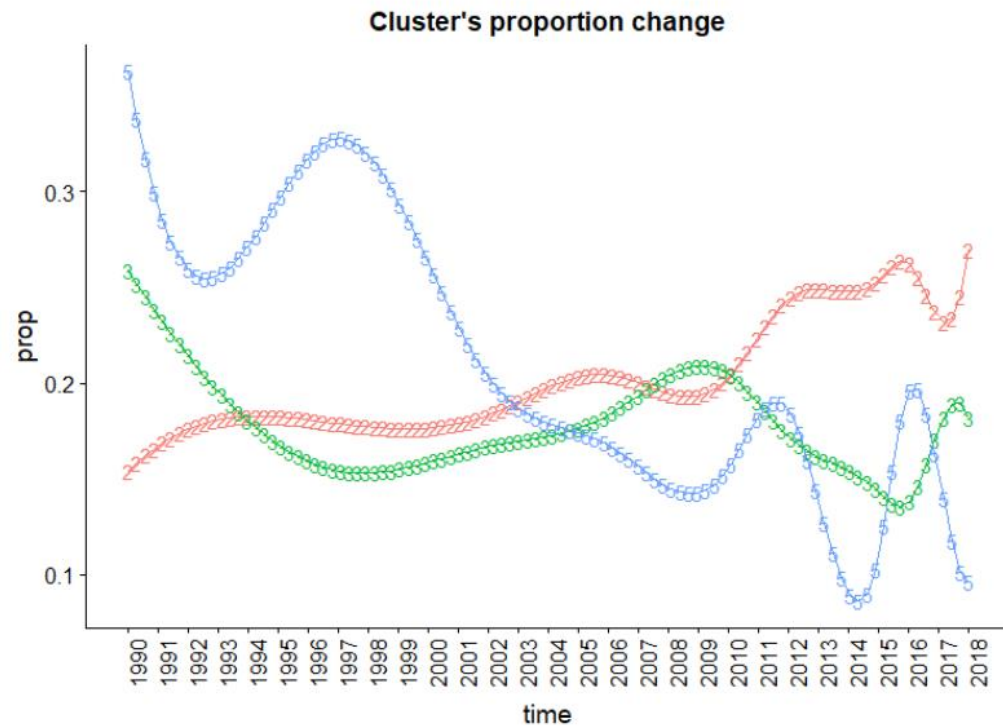
11개 클러스터가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클러스터2: 사회 구조 및 체계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클러스터3: 국가 정책 결정 및 정부 개입 행동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클러스터5: 정치권 갈등에서 표현된 울분 및 국가 전체의 울분



주요 변화 요약

- 정치권 갈등을 '울분'으로 포착하고 주목하는 움직임 (클러스터5) 급격히 감소
- 사회 구조 및 체계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은 점차 증가
- 정부의 적극적 행동과 개입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관련 기사는 점차 감소

Workplace embitterment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19, VOL. 28, NO. 3, 315–328
<https://doi.org/10.1080/1359432X.2019.1580694>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Testing the benefits of expressive writing for workplace embitterment: a randomized control trial

Evie Michailidis and Mark Cropley

School of Psychology, University of Surrey, Guildford, UK

ABSTRACT

Clinicians working i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often recognize features of embitterment in organizations; however, research on interventions for embitterment are scarce. The present study aim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n expressive writing intervention on working adults who experience workplace embitterment. Employing a randomized control trial we sought to test an expressive writing intervention for its effects on reducing embitterment, work-related rumination and sleep quality and assess whether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was maintained over time by following up participants after one and three months. Findings partially supported our hypothesis as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expressive writing intervention ($N = 23$) did not show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embitterment, affective rumination, higher

ARTICLE HISTORY

Received 12 July 2018
Accepted 4 Februar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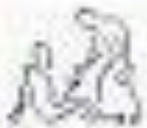
KEYWORDS

Embitterment; work-related rumination; sleep; expressive writ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mbitterment

in the Workplace

Aquila Training



Code 07 2019

Workplace embitterment

- 태움
- 부당해고
- 갑질

Different typologies of workplace conflict and their connections with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Harald Ege

PRIMA Associazione Italiana contro Mobbing e Stress Psicosociale, Bologna, Italy; Università Politecnica delle Marche, Ancona, Italy;
harald.ege@iol.it

Received 4 December 2009; revised 14 January 2010; accepted 18 January 2010.

ABSTRACT

Reported is an empirical study which shows that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is the most appropriate psychological diagnosis for victims of workplace conflicts, particularly bullying. A group of 118 people all reporting conflict at work were evaluated with the LIPT questionnaire, the PTED self-rating scale and a guided psychological interview. 91.5% proved to be affected by a PTED, the slight majority males, aged between 31 and 40 years and subjected to bullying. The evidence suggests that some workplace conflict victims who are presently diagnosed and treated as depression or phobia can be in fact cases of PTED. The treatment may be adjusted and the PTED scale may be used as a screening instrument similar to scales for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Keywords: Workplace; Conflict; PTED; Bullying; Straining

1. INTRODUCTION

In Ita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about conflicts at work and claims for damages from victims. In recent years a considerable number of legal actions have been promoted and medical doctors and psychologists have often been called as expert witnesses to define the conflict, investigate its causes and negative potential, and evaluate the grade of the loss suffered by the claimant. This should be done, of course, both in a purely medical sense (biological damage, or damage to the health) and in the so-called existential aspect (damage to the interior existence of the person, his/her affectivity, habits, interests, quality of life).

It is then very important for Work Psychology to find

suitable answers to the requirements of the Law, that is to dispose of efficient, clear and objective instruments to distinguish the different forms of workplace conflicts and to guarantee diagnostical accuracy. This in order to give concrete help to victims in two aspects: on the legal point of view to a correct evaluation of the damage suffered and on the psychological side to optimize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2. DEFINITION OF WORKPLACE CONFLICT: THE 7-PARAMETERS METHOD

Bullying at the workplace is a systematic, persistent and progressing conflictual situation in which one or more people are subjected to hostile persecutive actions by one or more mobbers (colleagues, supervisors or subordinates), who aim at causing damages. The mobbee(s) is/are put in a position in which they cannot react adequately to attacks and in the long run they can show psychosomatic, relational or depressive symptoms, which can drive to permanent psycho-physical invalidity.

In 2002 an original method of recognition of bullying in a work event was developed, which works on the basis of 7 definitive parameters [1]:

- 1) Work Context (the conflict must take place on the work place);
- 2) Frequency (the hostile actions must occur at least some times a month);
- 3) Duration (the conflict must have been going on at least for six months);
- 4) Kind of actions (the hostile actions must belong to at least two of Leymann's five categories);
- 5) Difference in level of the two antagonists (the mobbee must be constantly in a position of inferiority);
- 6) Progress through phases (the work event has reach at least the II phase of a Six-phase model of bullying);
- 7) Persecutive intention (a coherent and aimed vexatory scheme must be clearly noticeable in the work event).

This article was downloaded by: [131.3.182.131]

On: 13 May 2014, At 10:24

Publisher: InTech

Informa Ltd Registered in England and Wales Registered Number: 1013144 Registered Office: Mortimer House, 27-41 Mortimer Street, London W1T 3JF, UK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instructions for autho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http://www.intechopen.com/journal/wbh>

A Stud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and Workplace Bullying

by: Karaman, T. & Ozel, G.K.

¹Edirnegi Vocational High School - Kadir Has University, Kütahya - Turkey

²Department of Management and Health Psychology - Western University - Istanbul - Turkey

Published online: 03 May 2010

To cite this article: Karaman, T. & Ozel, G.K. (2010) A Stud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and Workplace Bullying.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2(3), 234-236, doi: 10.4236/health.2010.23033

To link to this article: <http://dx.doi.org/10.4236/health.2010.23033>

PLEASE SCROLL DOWN FOR ARTICLE

Taylor & Francis makes every effort to ensure the accuracy of all the information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publications on our platform. However, Taylor & Francis, our agents, and our licensors make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whatsoever as to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suitability for any purpose of the Content. Any opinions and views expressed in this publication are the opinions and views of the authors, and are not the views of or endorsed by Taylor & Francis. The accuracy of the Cont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and should be independently verified with primary sources of information. Taylor and Franci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es, actions, claims, proceedings, demands, costs, expenses, damages, and other liabilities whatsoever or howsoever caused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in relation to or arising out of the use of the Content.

This article may be used for research, teaching, and private study purposes. Any substantial or systematic reproduction, redistribution, resale, or other forms of copying, systematic supply, or distribution in any form is anyone is expressly prohibited. Terms & Conditions of access and use can be found at <http://www.intechopen.com/page/terms-and-conditions>